

영광군, 상사화 국내외 자원 관리전략 및 소득화 방안 세미나

농가 30여 명 대상 수입 절차·유통 현황 등 내용 진행 외국산 구근 수입검역 절차서 바이러스 폐기처분 많아

영광군은 지난 22일 불갑사 내 상사화 교육관에서 상사화에 관심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상사화 국내외 자원 관리전략 및 소득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상사화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상사화가 한창인 축제기간에 개최되어 관심은 더욱 고조되

었다. 세미나의 내용으로는 국외 상사화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절차, 국내 유통관리제도 및 유통현황, 상사화 품종별 특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외국산 구근은 수입검역 절차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폐기처분이 많아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영광군은 전국최고의 상사화 군락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사화 재배 및 자원화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영광군이 시행한 상사화연구회 현장견학 또한 상사화에 관심 있는 회원들의 열정으로 추진되었으며, 상사화 관리와 산업적 확장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날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 상사화 축제가 유명한 만큼 더욱 상사화 꽃으로 인지를 굳힐 수 있도록, 영광군 어디를 가나 상사화를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형 혁신 주니어보드 '무안 톡(Talk)' 참가자 미팅 개최

MZ세대의 자유로운 소통 창구 역할 기대



무안군 MZ세대 공직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무안군은 지난 23일 무안읍 소재 브런치 카페에서 '무안 톡(Talk)' 참가자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안 톡(Talk)은 무안형 혁신 주니어보드로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공직자로 구성된 청년 회의체이며, 톡톡 튀는 MZ세대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 '토크(Talk)'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날 미팅은 MZ세대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기존의 정형화된 회의 방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5명씩 4팀으로 구성된 20명의 젊은 공직자들이 앞으로 1년간 매월 1회 이상 자율모임을 갖고, 오픈북을 이용한 소통채널을 운영하는 등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방안 등 정책제안 및 직원 간 소통창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우리군 무안 톡(Talk) 참가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젊은 공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고,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무안 발전을 위한 젊은 공직자들의 활동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기억이 새록새록 '청춘심터 2기' 운영

영암군은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및 치매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청춘심터' 프로그램 2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작업치료·운동치료·공예치료 등 다양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과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이번 2기 프로그램에서는 국립나주숲체원과 연계하여 자연물을 이용한 향노화 산림치유사업으로 으사사 숲속 운동, 소도구를 활

용한 스트레칭 프로그램 진행으로 치매 어르신들이 다양한 인지 수업을 접하게 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자극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완화시키고, 가족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청춘심터 프로그램 대상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은 청춘심터 담당자(470-6669)에게 문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정원문화진흥위원회 회의 개최

신안군 정원정책수립 및 기본방향 제시에 앞장

신안군은 지난 20일 신안군 정원문화진흥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안군이 가장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푸른 생태환경의 아름다운 신안 조성을 위해 한층 더 심도있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한 신안군 군립정원 지정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원문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안기원 산림자원학과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2년간 신안군 정원정책과 기본방향 등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정원문화확산을 위한 신안군 정원의 가치, 필요성 등 인문학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양묘교육, 정원해설사, 군립정원사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분재정원, 톨립·홍매화정원, 수국정원 군립정원지정에 관한 건은 면적, 완성도 등을 검토한 결과 군립정원으로 지정되기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통과되었다. 또한 1004섬 신안군의 정원의 날로 지정된 10월 4일 신안군청 잔디광장에서 제1회 정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도시정원과 농어촌, 특히 섬의 정원은 차별성이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가 꿈꾸는 신안군의 정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닌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공간이자 자랑스런 관광자원으로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그리고 쉽터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뮤직플레이에서 목포근대문화 감상하세요

1930년대 목포거리로 연출한 난영재즈극장 운영...재즈·태프스 등 공연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갯바위 문화타운 일원에서 열리는 목포뮤직플레이가 목포의 근대문화를 선보인다. 1930년대는 유럽에서 재즈 열풍이 불었던 시기인데 그 당시 목포에서도 재즈풍의 노래가 유행했다. 이난영 여사의 '다방의 푸른 꿈'은 우리나라 최초 재즈풍 블루스곡이다. 목포시는 이와 같은 목포의 역사성과 음악세계를 선보이기 위해 갯바위문화타운 1

층에 난영재즈극장을 운영한다. 난영재즈극장은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갑자옥 모자점, 이난영 여사의 집, 목포극장, 선구점, 잡화점, 흥어가게 등을 구성해 1930년대 목포 거리로 연출했다. 또 개화기 의상을 무료로 대여해 행사장 곳곳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즈극장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정삼옥(베이스)·임슬기(피아노) 등 인기 재즈 뮤지션

5명의 1930년 뉴올리언즈 재즈 공연 '모던 보이재즈', 이난영 여사의 삶을 재즈로 노래하는 스토리 공연 '재즈테일즈'를 비롯해 이윤진의 정가(궁중성악) '사랑겨울말이'가 포함된 재미난 목포이야기 콘서트 '오페는 풍각쟁이야기'가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조성호(영화 스윙키즈 안무감독)·손윤(MBC 조조할인 출연)·박지혜(명창올림픽 공연) 등 3인조 태프스를 비롯해 국내 대중음악 박사 1호인 장유정 교수가 대중음악이 등장하기 이전에 인기를 끌던 노래부터 시작해 근대가오의 네 가지 갈래(재즈송, 신민요, 트로트, 만요)의 형성과 전개를 노래로 들려준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